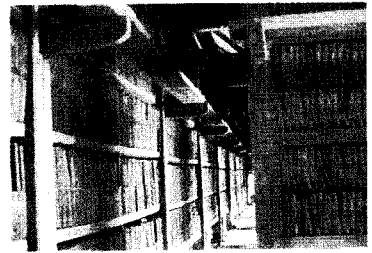


IQ 세계 1위 대한민국

아킬레스건 - 독서

김 학 순 | 경향신문 신문발전연구소 소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여가활동은 여전히 TV 이고 독서는 풀지를 차지할 만큼 책을 읽지 않는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창의적인 엘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TV를 멀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실할 때이다.

성공, 책을 많이 읽는데서부터

몇 년 전에 들었던 걸로 기억된다. 스웨덴에서 나온 흥미로운 조사결과다. 스웨덴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각계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시청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텔레비전 대신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 여성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는 아니카 소렌스탐 선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책을 많이 읽는 리더(reader)가 사회를 이끄는 리더(leader)가 된다는 교훈적 속설을 통계로 입증한, 더없이 좋은 예화다.

부자 전도사로 통하는 40대 은행원 문승렬씨가 들려주는 에피소드도 친한 감동을 안겨준다. 문씨는 허름한 입성을 한 80대 할아버지를 이른바 큰손(VIP)고객으로 모시게 되었다. 현금만 80여억원을 가진 부호 할아버지는 한 달 평균 50권에 달

하는 책을 읽고 하루에 신문을 5가지 이상, 그것도 정독하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스티븐 코비의 명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바로 그 7가지 중에도 독서가 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천재적인 벤처기업인 빌 게이츠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시간씩 책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공공도서관이다' 라고 게이츠가 한 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책 읽지 않는 우리, 미래가 걱정

사실 귀가 따갑도록 자주 듣는 말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게 책읽기다. 텔레비전에다 비디오, 영화, PC게임 같은 영상물이 범람하는 요즘 세상에선 더 한층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책 안읽기로 세계적인 악명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다.

여러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다는 한국 국민이 무려 40%나 된다는 조사결과는 해가 바뀌어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 올 초에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조사결과만 보아도 어렵잖게 증명되고 남는다. 첫 손가락에 꼽히는 여가시간 활용은 단연 TV시청이다.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잇는 것이 운동과 인터넷·PC통신·게임이다. 이 3가지가 나란히 19%대의 비중을 차지한다. 낮잠과 같은 단순 휴식, 음악·영화 감상, 집안 정리에 이어 맨 꼴찌가 독서다. 그것도 겨우 36%.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 안에서 느끼는 첫 감상을 물어봐도 우리의 진면목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대부분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그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다.

책을 든 사람들이 가장 흔한 자기네 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촌평이 어김없이 나온다. 고작 손에 들고 읽는다는 것도 얼마전까지는 대개 스포츠신문이었다가 요즘 들어선 내용도 빈약한 심심풀이 무료신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표적인 문화선진국 프랑스는 우리와 너무 대비된다. 문화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독서다. 그것도 절반을 넘는 비중인 58%나 된다. 더 부러운 것은 15~19세의 젊은 독자비율이 2002년 5%에서 2003년에는 7%로 오히려 늘어난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린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미국 소아과학회의 최근 연구결과는 특히 우리네 가정에서 부모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눈에 띈다. 어릴 때 TV를 많이 보는 어린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진다.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창의력도 따라서

줄어든다. 게으른 부모에게 어울리는 육아법으로 비판받는 'TV나 봐라'며 방치하는 무관심이 낳은 치명적인 부작용이다.

청포도 먹어가는 시절엔 책읽기

전세계 180개국 중에서 국민평균 IQ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얼마전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토마스 폴켄 박사로부터 나왔지만 그리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지적은 뼈아프다.

아킬레스건은 바로 창의적인 엘리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원인은 바로 독서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어린 시절의 독서습관이 미래를 좌우한다'거나 '국가경쟁력과 성장동력은 책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저 나온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강제가 아닌 동기부여다. 물을 먹이기 위해 말을 물가로 끌고 가더라도 스스로 먹게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책을 다 읽으면 TV를 보게 해 준다는 약속이다. TV가 책보다 선망의 포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최선의 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스스로 TV를 멀리하고 자녀와 함께 책을 손에 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최소한 자녀가 책을 읽는 동안에는 TV와 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독서 습관이 몸에 밸 때까지 만이라도 그래야 한다. 어린 자녀에겐 부모가 책을 읽어준다면 금상첨화이다. 적어도 '독서가 학교 성적을 올려주느냐, 밥을 먹여 주느냐'는 천박한 생각에서만 벗어나야 할 때다. 바야흐로 책읽기엔 천고마비의 절기보다 더 낫다는 청포도 먹어가는 계절이다.